

본문말씀

창세기 1장~4장

Since Oct. 10, 2011
예외 한인 장로회
하나님의 사랑교회

제 1 장

천지 창조

-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 2 땅이 1)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 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 4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 5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 6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 7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8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 9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10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 11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 12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 1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 14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2)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 15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16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 17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 18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 19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 20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 21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 22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 2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 24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25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 29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 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제 2 장

- 1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 2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 3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에덴 동산

- 4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 5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 6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 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1)생령이 되니라
- 8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 9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2)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 10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 11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돌렸으며
- 12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3)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 13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돌렸고
- 14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앗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 15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 16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 18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 19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 20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 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 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 23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 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 25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제 3 장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

- 1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 2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 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 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 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 8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 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 10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 11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 12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 13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 14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 16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 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 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 19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 20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1)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 21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다
- 22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 23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 24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제 4 장

가인과 아벨

- 1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1)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2)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 2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 3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 4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 5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 6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나
- 7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 8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3)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 9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 10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 11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 12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 13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 14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낫을

볶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 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의 자손

- 16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4)놏 땅에 거주하더니
17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18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므후야엘을 낳고 므후야엘은
므드사엘을 낳고 므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19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쉴라였더라
20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2 쉴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23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쉴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4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셋과 에노스

- 25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